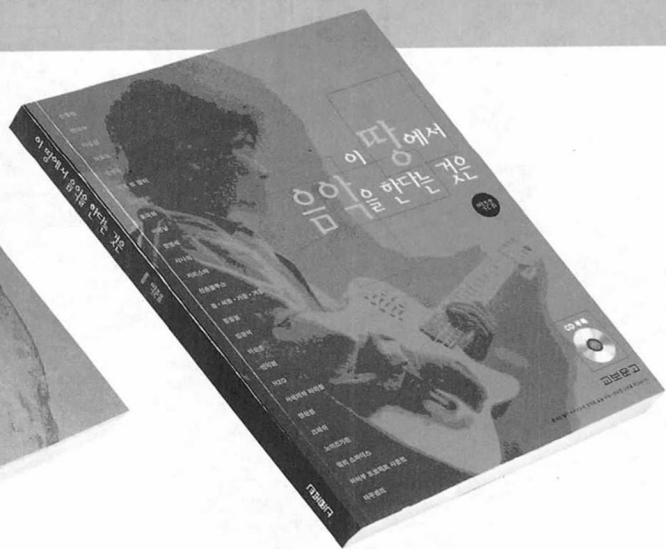




이레/A5신/200면/8,000원



한길사/A5신/354면/10,000원



교보문고/A5변형/444면/15,000원

## 속인의 심금 울리는 동자승의 꿈



“동자승을 그리며 제 분신을 찾습니다. 그림 그리기 수행은 동자승처럼 맑은 영혼을 얻기 위한 과정이니까요.”

《풍경》 펴낸 원성 스님

까까머리 동자승이 사는 산사의 영혼은 맑다. 해인사를 거쳐 개불정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원성스님(27)은 그 해맑은 기운을 속인들에게 전하기 위해 그림을 그린다. 풍경소리에 취한 듯 처마 밑에서 즐기고 있는 동자승부터 지대방에서 천진무구한 표정으로 이야기 꽃을 피우는 동자승, 또는 어머니를 생각하는 듯 하염없이 먼 산을 바라보는 동자승의 얼굴은 티없이 깨끗한 자연의 정감을 전한다.

“동자승을 그리며 제 분신을 찾습니다. 그림

그리기 수행은 동자승처럼 맑은 영혼을 얻기 위한 과정이니까요.”

원성은 10년 전 이미 청년기로 접어들 때 출가했다. 특별히 미술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 그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지 5년여 동안 국내는 물론, 뉴욕·도쿄·밀라노 등에서 25차례 전시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속세의 때가 묻지 않은 산사의 고즈넉한 풍경을 담아냈기 때문이다. 더욱 마치 새벽 이슬을 떨구며 산사에서 막 내려온 듯한 동자승의 해맑은 모습은 갤러리들의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했다.

그동안 그린 500여점의 작품 가운데 추린 90여점의 그림과 산사의 정감을 담은 글을 함께 묶은 《풍경》(이레)은 그의 그림일기. 산사에서의 생활과 선의 길을 걷는 수행자의 고뇌가 솔직하게 담겨 있다.

“그림 그리기는 자기절제를 요구하는 수행방법입니다. 선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인내와 인욕, 그리고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을 견뎌야 하기 때문이죠.”

원성은 한장의 그림이 백가지 법문보다 나은 때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혼신을 다해 그림을 그린다. 깨달음을 전해 주는 그림을 통해 그는 또다른 포교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름이 지나면 선 수행을 전념하기 위해 산사

로 들어갈 예정이다. 그림을 그려 속인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만큼 평생 깊어지고 살아갈 화두를 찾는 일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 오원진 기자

## 우리 삶에서부터 출발하는 철학



“우리의 삶과 사회 자체가 바로 철학적 문제의 장입니다. 철학함은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주체적으로 묻는 일입니다.”

《호모 에티쿠스》 펴낸 김상봉씨

이 땅의 철학자가 거리로 간 까닭은? 자본이라는 이름의 도적이 강의실을 점령해버렸기 때문이다. 그곳에 철학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그리스도신학대에서 해직당한 김상봉씨(39)는 이제 ‘교수’가 아니라 ‘철학자’다. 우리 현실로부터 출발하는 철학적 사유를 펼

치기 때문이다. 이번에 펴낸 《호모 에티쿠스》(한길사)는 '자가발전적' 사유의 성과물이다.

“우리는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삶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물음 없이 경제적 이익에만 몰두합니다. 하지만 자기만의 행복과 이익에 집착하는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선이란 무엇이며 왜 선하게 살아야 하는지 능동적으로 물을 때, 우리 사회는 한단계 도약할 수 있어요.”

지난해 봄 일반 시민들을 위한 ‘김상봉 철학교실’의 강의록을 보완한 이 책은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부터 칸트에 이르기까지 서양 윤리학의 탄생과 완성과정을 해명했다.

“철학은 우리 현실과 성실하고 정직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공리공담이 아니라 삶의 고뇌로부터 출발해 묻고 답할 때 그것 자체가 철학적이지요. 서양의 윤리학은 우리가 자기자신에 대한 궁지, 타인의 고통에 대한 동정과 연민, 그리고 보편적 법칙에 대한 존경심을 지닐 때 선하게 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김상봉 철학교실’은 지금까지 서양미학사, 데카르트와 근대적 주체성 등을 의제로 삼아왔다. 처음 20여명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수강자가 70여명에 이른다. 일반 시민들로 이뤄진 수강자들은 각자 절박한 물음 때문에 철학에 문을 두드린 사람들이었다.

제도적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그는 교수 신분 때보다 더 바빠졌다. 다음달부터 ‘호메로스’와 서양적 나르시즘의 탄생’을 주제로 한 제4기 김상봉 철학교실을 열고 칸트의 3대 비판서 번역작업에도 몰입하고 있다. 이정우·양운덕 등의 철학자와 함께 개방적 토론이 가능한 학문공동체도 구상중이다.

— 박천홍 기자

## 시대를 직시하고 호흡한 아티스트



“음악은 삶의 방식을 대변하고 당대를 읽는 중요한 코드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음악을 한다는 것은》 펴낸 박준희씨

‘이 땅에서 음악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거대한 음악산업과 대중 모두와 사이좋게 지내야 하는 음악평론은 더구나.

“평론집단과 매체는 음악보다 현상을 애기거리로 부각시키거나 대중들이 원하는 것만을 다룹니다.”

박준희씨(33)는 대표적인 예로 조용필을 꼽는다. 아무리 앨범을 들어보아도 그가 8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인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월간 《서브》에 연재한 것을 보완해 엮은 《이 땅에서 음악을 한다는 것은》(교보문고)은 그래서 7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대중음악통사라기보다 강한 자기 주장이다.

“비중이 크든 작든 등장한 뮤지션만 모두 200여명 정도인데요, 단 한 장이라도 평가할 만한 앨범을 가지고 있느냐로 평론대상을 골랐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회구성원으로 시대를 직시하고 호흡한 앨범인가에 무게를 뒀다. 지향이 일관된 디스코그래피를 가진 ‘아티스트’는 드물지만, ‘사건으로’ 조동익·강기영·이상은 등을 꼽는다. 엔터테인먼트는 철저히 뺐는데, ‘댄스 가수’(?) 이현도를 언급한 것이 색다르고, 신중현

등 이른바 ‘원로’ 대가들을 먼저 말하지 않는 게 이상하다.

“신중현은 의미를 잘못 짚은 경우죠. 최고작으로 꼽는 ‘신중현과 엽전들’에 역사성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더 맨’ 등 더 뛰어난 앨범들이 있는데.”

신화가 뿌듯함이야 주겠지만 그건 기만이며 뮤지션을 오히려 욕되게 한다. 최근 테크노 열풍을 봐도 그렇다. 번쩍거리는 외양, 약물과 섹스와 연계 등이 흥미거리일 뿐, 원자화되는 현대 문명에 대한 이해나 동시대 다른 장르인 힙합과는 어떻게 같고 다른지 고려하지 않는다.

“음악이 삶의 방식을 대변하고, 당대를 읽는 중요한 코드라면 이런 이해는 피상적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매체와 비평은 이런 분위기를 조장합니다.”

음향엔지니어가 되고 싶어 전자공학을 전공했지만 도체시스템에 절망하고 차선으로 택한 곳이 연구소. 하지만 선천적으로 짜여진 틀이 거추장스러워 G-TV 등에서 일하다가 음악전문지에 자리잡았다. 매체의 한계를 절감한 그는 10월 중에 음악전문 웹진(gaseum.co.kr)을 창간한다.

“웹진은 비용이 적게 드니까 자본에서 독립적이죠. 광고주나 대중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음악에 빠져 오랫동안 키워온 음향엔지니어의 꿈을 포기한 것은 아쉽지만 음악전문지를 제대로 해 보고 싶다. 대중매체로 한정된 우리 대중음악계의 다양한 공간의 하나로서 시스템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성과를 차곡차곡 쌓아 우리 대중음악사의 충실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싶다. 지금 능력으로는 평생이 걸릴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다.

— 이현주 기자